
정책참고자료

2018-2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4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원시 지동 현장점검 -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1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열어 -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민간과 함께 공정경제·상생에 역량 집중	13
	-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 개최 -	
4 교육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17
	-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개소	21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및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	
6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반짝이는 '2018 한국관광의 별'	25
	-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박서준 등 10개 부문 선정 -	
7 농림축산식품부		
	신선농산물 수출, 현지 SNS 홍보 확대	34
	- 수출 지원 정책 성과 점검을 위한 "농식품 수출 전략회의" 개최 -	
8 환경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하수도 정책 논의의 장 마련	36
	- 하수도 분야 유역관리정책, 재이용 활성화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논의 -	

9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워라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_____ 36
-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

10 여성가족부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_____ 40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11 국토교통부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선정 _____ 43
-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지자체 역량 제고 -

12 해양수산부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_____ 50
- 해수부·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 개최(12. 13.) -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원시 지동 현장점검 -

-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전북 완주군 등 행정안전부 주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 사업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대표가 12일 수원시 지동에서 모였다.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전국 공모를 통해 17개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150억 원씩 총 3년 동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 특히, 이번에 모인 4개 자치단체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 이들은 수원시 사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수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안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의 성과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수원시 지동을 비롯한 4개 지역의 주민 대표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환경이 점차 안전하게 변화된 경험을 공유하였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그간의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말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마치고 류희인 본부장과 주민 대표들은 수원시 지동 일대에 설치된 안전 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돌아보았다.

- 수원시가 경기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안전부스×폴리스박스에 방문하여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작동법 등을 직접 시연해 보았다.

- 또한,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의 접근이 어려워 제때 제설이 곤란했던 급경사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둘러 보면서 직접 작동시켜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 류희인 본부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수원시의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돋보인다.”라며,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지자체는 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자기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 설치연도 : 2018.11.7.
- 소요예산 : 30백만 원 (안전마을 지자체 예산)
- 이용대상 : 안전부스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이용 가능
- 특징 :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치안수요 발생율이 높은 인계동 중심상가지역에 **전국 최초 안전부스와 폴리스박스** (순찰강화 거점 초소*)를 **연계 설치**한 수범사례
 - * 취약시간대 파출소 경찰관, 형사, 상설 기동부대 경찰관 근무
- 주요시설 : 안전부스, 폴리스박스, 안심벨, 자동심장충격기, CCTV (내부 및 외부), 소화기 등
- 작동방식

위급상황에서 **내부 진입** ⇒ **비상벨 누름**(동시에 ① 문 닫힘, ② 외부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③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3~4회 이상 수화음 미수신 시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자동연결) ⇒ **비상통화(신고)**

※ 내부에 문 열림 버튼 있음

<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



참고 2

분야별 안전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범죄 예방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 공·폐가 출입 방지시설

전	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폐가를 방지하면 아무나 출입하여 범죄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출입 방지 시설을 설치

② 경기 수원(지동) 로고젝터 설치

전	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야간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밝

③ 전북 완주(삼례읍) 쓸라 표지병 설치

전	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골목길에 쓸라 표지병을 활용하여 환한 환경 조성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 이격공간 펜스 설치

전	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사이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 교통사고 예방 분야

① 광주 남구(월산동) 어린이 승·하차 구간 정비

전	후	설명
		<p>▶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분명히 하여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p>

② 부산 북구(구포동) 구남초 앞 옐로카펫 설치

전	후	설명
		<p>▶ 운전자가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보행 환경 개선</p>

③ 전북 완주(삼례읍) 보·차도 분리

전	후	설명
		<p>▶ 보행도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사고 예방</p>

④ 울산 동구(동부동) LED 횡단보도 설치

전	후	설명
		<p>▶ 야간에 횡단보도를 명확히 볼수 있도록 LED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사고 예방</p>

□ 화재안전 분야

① 광주 남구(월산동) 골목길 소방차 용로 픽토그램 설치

전	후	설명
		<p>▶ 소방차 진입로를 명확히 표시하여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 방해 예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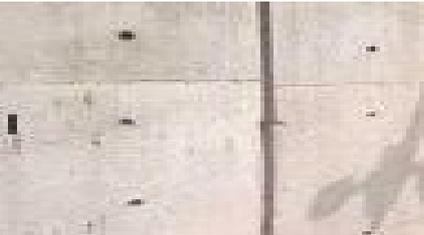
② 부산 북구(구포동) 일체형 소화장치함 설치

전	후	설명
		<p>▶ 골목길에 소화장치함 설치를 통해 재 발생시 대응력 강화</p>

③ 전북 완주(삼례읍) 소화전 분리대 설치

전	후	설명
		<p>▶ 차량으로 인한 소화전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대 설치</p>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전	후	설명
		<p>▶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대응능력 보강</p>

□ 자살 예방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 구포대교 자살 방지시설 설치

전	후	설명
		<p>▶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살 방지</p>

□ 감염병 예방 분야

① 충북 증평군(증평읍) 포충기 설치

전	후	설명
		<p>▶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p>

③ 인천 동구(송현동)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전	후	설명
		<p>▶ 송현근린공원에 시민들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장치 설치</p>

□ 자연재해안전 분야

① 경기 수원(지동)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전	후	설명
		<p>▶ 겨울철 눈길에 취약한 가파른 경사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p>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열어 -

- 반부패 주간을 맞아 우리사회 반부패 시스템과 법·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6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경험과 교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최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 과

정의 불공정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넓은 의미의 부패인 '생활 적폐' 관련 범정부 대응도 설명할 예정이다.

- 세션1에서는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염정공서의 반부패 3대 정책(수사, 방지, 교육), 일본 내 뇌물수수 사건 발생현황 및 2016년 도입된 수사 및 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가 반부패 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효과 등이 논의된다.
- 세션2에서는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반부패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기업 부문 청렴 제도의 특징, 민간부패 영역 가운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갑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논의된다.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청렴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반부패주간에 기념식, 연극 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국제포럼도 그 일환으로 국내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 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반부패 정책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민간과 함께 공정경제·상생에 역량 집중

-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 개최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일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 * '18.12.5(수) 10:30~12:00,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무엇보다도, 향후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로
 -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 추진단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총 16명)
 -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 **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구성 및 주요기능

□ 공정경제추진단 구성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 추진단장(공동, 2명) : 중소기업정책실장, 민간전문가
- 운영위원(13명)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지자체) 서울, 경기
(민 간) 민간전문가, 중기중앙회 등
- 간사(1명) :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

□ 주요 기능

- 공정경제 추진방향 및 성과점검, 상생협약 추진 등과 함께, 현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계획 및 결과 등 검토·조정

* 민관이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소상공인 애로 등을 분석·조사하고, 조사-제재-상생협약 등에 대한 정책자문 및 조정 역할 수행

□ 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비 고
공동단장 (2)	조 봉 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 남 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위원 (13)	이 준 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조 주 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권 대 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이 호 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김 태 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박 덕 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김 남 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위 평 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 봉 의	서울대학교 교수
	손 승 우	중앙대학교 교수
	이 재 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 동 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남 윤 형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장
(간사)	노 형 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

붙임 2**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 및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 12. 5(수), 10:30, 여의도 중기중앙회 중회의실
- (참석자) 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정책실장, 김남근 변호사), 중기부 당연직 국장, 민간전문가 등
- (주요내용)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공정경제 관련 중기부 주요정책 논의 등

구 분	시 간		비 고
인사말씀	10:30~10:35	5"	(공동단장) 조봉환 정책실장, 김남근 변호사
위촉장 수여	10:35~10:40	5"	중소기업정책실장 → 민간 위원
안전보고 및 논의 (비공개)	10:40 ~ 11:35	55"	① 공정거래추진단 구성·운영계획 ②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계획 ③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마무리	11:35 ~ 11:40	5"	

* 사회 : 거래환경개선과장(추진단 간사)

* 위촉장 수여 이후 순서는 비공개(안전 및 진행순서는 변동 가능)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3일(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이다.
 - 먼저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19년)하여,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교과서의 개정보다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확산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을 위해,

-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 수업사례를 확산('19년~) 하고 과정중심의 관찰평가 및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20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 두 번째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이다.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교장연수) 200명('18년) → 800명('19년) → 1,000명('20년)

※ (교감연수) 200명('19년) → 800명('20년) → 1,000명('21년)

※ (교사연수) 2,000명('19년) → 2,500명('20년) → 3,000명('21년)

-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지원하고('19년~'22년),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예비교원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다.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민주시민학교'를 선정('19년 51 개교 내외)·지원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한다.

민주시민학교 운영계획(안)

- (개념)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
- (운영기준) ①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참여·협력형 수업 마련, ②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제도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 (지원 내용) 민주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컨설팅 실시, 소속 교원 연수 등 지원
- (성과확산) 우수학교 운영사례를 분석·연구하여 주변 학교 교원과의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로 성과 확산

-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간수업 프로젝트

- (개요) 학생들이 상상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사와 마을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기획·설계·제작하는 공간수업
- (과정) 관련 책 읽기 → 상상 자극을 위한 공간 배움여행 → '내가 상상하는 학교공간' 설계하기 → 공간 설계도 발표하기 →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등을 활용하여 매주 공간수업 진행 → 공간 개소 및 활용
- (예산)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후 희망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원('19년~)

-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교육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 네 번째는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이다.

-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기제로,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자치회실 환경 구축 지원,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학생 자문단 운영 등

-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포럼·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 **(목적)** 민주시민교육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관련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
- **(역할)** 신규 정책 제안 및 교육부 정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 **(위원 구성)**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중 학자, 교원, 관련 단체 활동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 **(운영 방식)** 분기별 정례회 개최, 필요시 수시회 개최 가능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하며,
-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개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및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12일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매년 증가하고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외 사이버 위협정보를 통합·가공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 이 센터는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유 위협정보*(1.9억 건)에 각종 보고서, 이미지 등 비정형 정보와 국내외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수집된 위협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3.5억 건 이상의 위협정보를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6억 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위협도메인·IP, 악성코드, 악성코드 유포지, 명령조정지(C&C), 보안 취약점 등

-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협정보의 기계학습(머신러닝)과 보안 관련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위협정보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예: 특정 악성코드가 어느 유포지, 명령조정지를 이용하는지 등 정보간 연관관계를 포함

○ 나아가, 위협정보별 신뢰 등급을 현행 3단계 체계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활용기관에서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 위협정보 수집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센터를 인터넷 침해대응 업무에 우선 적용하여 사이버 위협 정보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활용예시) ①특정 IP가 여러 건의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우선 대응, ② 신규 도메인(홈페이지)의 악성여부를 도메인 생성 즉시 판단 및 집중 모니터링

□ 아울러, 빅데이터 센터는 보안업체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위협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석·가공한 2차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활용모델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 특히, 이용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과 이용자별 맞춤형 가상 환경,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20여종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에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센터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12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금융보안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주요 활용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악성 도메인 탐지 등에 관한 시연 등을 관람하였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방대한 양의 사이버침해 위협을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해킹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KISA의 인터넷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산학연에 제공하여 다양한 보안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센터 이용신청은 KISA의 정보보호 누리집(www.krcert.or.kr)에서 상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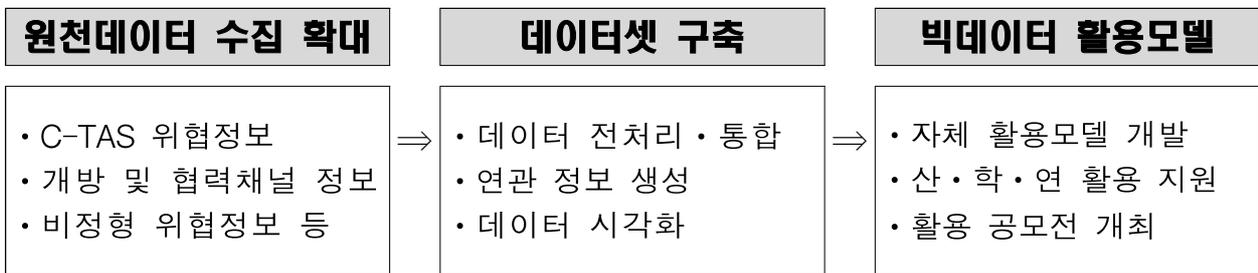
□ 센터 개요

○ 사이버위협 정보의 단순 수집·공유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14.8월)을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확대, 빅데이터(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플랫폼 구축

* 악성 코드·IP·도메인 등 38종, 1.9억건 위협정보 수집 및 실시간공유(229개 기관)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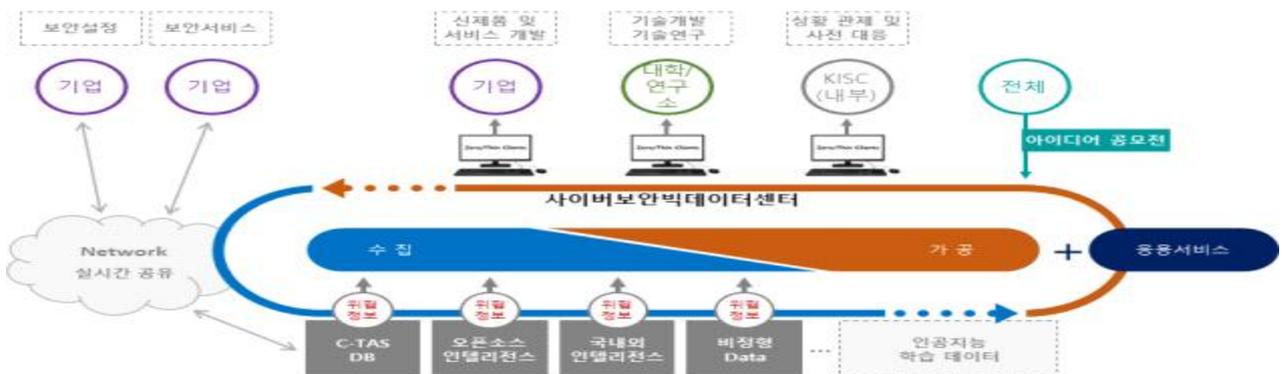


○ (데이터 수집) 기존 C-TAS 위협정보(1.9억건)를 포함, 국내외 다양한 위협정보(개방정보, 비정형 정보 등) 수집을 확대('18년 3.5억 → ' 19년 6억 건)

○ (데이터셋 구축) 수집된 위협정보를 통합,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정제·저장, 시각화

○ (빅데이터 활용) 자체 개발, 전문가 제안, 자유 공모 등을 통해 분석·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사례를 개방('18.12월~)

<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운용 방안 >



함께 반짝이는 ‘2018 한국관광의 별’

-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박서준 등 10개 부문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12월 11일(화) 오후 3시, 인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아리랑홀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6년 숙박 부문 수상지인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열리고, 2017년 전통자원 부문 수상자인 ‘안성 남사당놀이’가 축하공연을 펼쳐 수상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됐다. 2018년을 빛낸 4개 분야 10개 부문 ‘한국관광의 별’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후보들 중 학계, 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2018 한국관광의 별 선정 결과>

분 야	부 문	수 상 자
관광 매력물	자연자원	울릉도 & 독도
	문화자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전통자원	진도 토요일속여행 (공연)
	열린자원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관광 연계시설	숙박	공주 한옥마을
	음식	대구 안지랑곱창골목 & 앞산카페거리
	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
관광정보	정보	비짓 서울 (Visit Seoul)
관광 기여자	지자체	여수시
	공로자	박서준 (배우)

관광매력물 분야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등 4개 자원 선정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되었다. 천혜의 자연 경관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화자원 부문에 선정된 고성 비무장지대(DMZ)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중심지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실현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국내·외적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정한 동해바다와 통일전망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고성 비무장지대는 평화 관광의 시작지로 삼아봄직 하다.

그 밖에 ▲ 지역 역사, 전통문화, 전통예술 등 무형의 관광 매력물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전통자원 부문에서는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의 ‘진도 토요일속여행’이,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열린 자원 부문에서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되었다.

관광 연계시설 분야 공주 한옥마을,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3개 자원 선정

▲ 한국 전통 체험요소가 가미된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숙박 부문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춘 ‘공주 한옥마을’이, ▲ 한식(퓨전 포함) 등 먹거리 분야의 관광매력도 제고에 기여한 음식 테마거리를 선정하는 음식 부문에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맛집과 야경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안지랑곰창골목&앞산카페거리’가 영예를 차지했다. ▲ 전통시장, 야

시장 등 관광매력도가 높은 시장을 선정하는 쇼핑 부문에서는 예술과 시장이 만나 문화예술시장으로 거듭난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선정됐다.

관광정보 분야 비지트 서울, 관광기여자 분야 여수시, 박서준 선정

▲ 여행의 동기를 북돋거나 여행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 부문에서는 서울의 관광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는 서울관광재단의 '비지트 서울(Visit Seoul)'이, ▲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관광객 연 130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여수시'가, ▲ 공로자 부문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2>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한류배우 '박서준'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한국관광의 발전을 당부하는 자리"라며, "'한국관광의 별'이 우리나라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모범이 되어 다른 관광지들과 함께 '한국관광의 은하수'를 이루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8 한국관광의 별
2. 역대 한국관광의 별

(관광매력물-자연자원) 울릉도 & 독도



- 울릉도는 자연보전상태가 우수한 울릉도는 성인봉 원시림(천연기념물 제189호)과 그 북쪽에 위치한 나리분지로 유명하다
-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 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관광매력물-문화자원) 고성 DMZ



- 청정한 동해바다와 접해 있으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중심지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된 역사적인 곳이다
-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통일전망타워도 이달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관광매력물-전통자원) 진도 토요민속여행



- 1997년 이래 총 81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현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향토문화회관에서 무료로 우리 가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의 전통 무형문화자산 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4종(강강술래, 남도 들노래, 진도 씻김굿, 진도 다시래기)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3종(진도 북놀이, 진도 만가, 남도잡가)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요·민속을 만끽할 수 있다

(관광매력물-열린자원) 보성 제암산 휴양림



-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숲길을 따라 조성된 '더늬길'이 유명하다 판소리 용어인 '더늬'은 명창들이 작곡해 자신의 장기로 부르는 대목을 의미하며, '더늬길'이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자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더늬길'은 5.7km에 걸쳐 완만하게 설계된 숲속 무장애 트레킹 코스로 장애인, 영·유아, 노약자도 제약 없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관광연계시설-숙박) 공주 한옥마을



- 송산리 고분군(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화당, 국립 공주박물관사이에 위치하며, 한옥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숙박시설이다
- 공방촌과 전통문화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백제의상 입어보기, 백제유물로 소품 만들기, 백제차 이야기, 전통혼례 등 다양한 전통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관광연계시설-음식) 대구 안지랑곱창골목 & 앞산카페거리



- 안지랑곱창골목은 대구 10대 대표 음식인 막창과 곱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골목으로, 2012년도 전국 5대 음식테마거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앞산카페거리는 고급주택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갤러리 카페,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 약 50여 개의 매력적인 공간들이 도심 속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젊은이들의 새로운 야경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연계시설-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



- 2008년 광주 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대인 시장으로 옮기면서 전통시장이 예술과 만나 문화예술시장으로 변화했다
- 빈 점포에 작품이 전시되고 시장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지금은 광주의 주요 관광지로 거듭나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관광정보제공-관광정보) 비짓서울(Visit Seoul)



- 국문 포함 총 5개 언어로 운영되는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앱(App) 등으로 내·외국인 서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는 여행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 쌍방향 의사소통 및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에 맞추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살아 있는 콘텐츠 제작하고 있다

(관광기여자-지자체) 여수시



- 교통 및 숙박 인프라 확충, 아름다운 밤바다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자연 경관과 해양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MICE산업 활성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
- 2011년 이전에는 연평균 관광객 640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였으나 2015년부터 3년 연속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했다

(관광기여자-공로자) 박서준 (배우)



- '윤식당 시즌2(2018)'에 출연해 현지인에게 한국음식의 매력을 알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켰다
- 드라마 '쌈마이웨이(2017)'에 이어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가 연이어 인기를 끌며 중국 웨이보 한류세력 차트의 사회영향력 부문 국내 배우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한류스타의 입지를 공고히 해 한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붙임2

역대 한국관광의 별 수상자

분야	부문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관광 매력물	자연자원	제주 올레길 체험	소백산 자락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창녕 우포늪	문경새재 도립공원	평창 대관령	춘천 남이섬
	문화자원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수원화성	삼척시 해양 레일바이크	남산 N서울타워	한국민속촌	군산 시간여행마을
	전통자원	-	-	-	-	수원화성 무예브랜드 공연 '무무화평' (무예 24기)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안성 남사당놀이
	열린자원	횡성 숲채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대구 근대골목	통영시 케이블카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다함께 무장애 나눔길	경기광주 화담숲
	융복합 관광자원	-	신라달빛기행	내일로 (RAIL)티켓	곡성 기차마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봉화 산타마을	광명동굴
관광 연계 시설	숙박	라궁	청송 송소고택	영주 선비촌	한옥호텔 오동재	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	경원재 앰배서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쇼핑	-	-	정선 5일장	포항 죽도시장	정남진 토요일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대구 서문시장
	음식	보성 벌교 원조꼬막식당	전주비빔밥 고궁	-	한국전통음식 문화체험관	영덕 대게거리	강릉 커피거리	담양 음식테마거리
관광 정보	스마트 정보	명동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나홀로 여행가기, 나만의 추억만들기	태백 종합 관광안내소 경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국내여행 총정리	-	-	소통관광 '힐링! 여수야'	전북투어패스
	단행본	우리나라 그림 같은 여행지	여행작가 엄마와 떠나는 공부여행	우리나라 어디까지 가봤니? 56	New 내일로 기차로	-	-	-
관광 기여자	공로자	1박2일팀 배용준	김연아, 소지섭	카라	전지현	이민호	-	박보검
	지자체	-	-	-	-	최우수 제주도 서귀포시	서울특별시	경북 고령군
		-	-	-	-	우수 대구시 중구 충북 청주시	대구광역시	-
	기관	-	-	-	한국 농어촌공사	-	-	-
	기업	인천국제 공항공사	유한킴벌리	포스코	한화케미칼(주)	대	신세계 조선포텔	SK엔카닷컴(주)
주성 엔지니어링(주)					중 소	숨피	(주)알에이(RA)	(주)씨디에스

신선농산물 수출, 현지 SNS 홍보 확대

- 수출 지원 정책 성과 점검을 위한 “농식품 수출 전략회의” 개최 -

《 주 요 내 용 》

◇ 회의 개요

- (목적) '18년 농식품 수출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 (일시 및 장소) '18.12.6(목) 14시, 세종 NH농협 영상회의실
- (참석자)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자 단체, 수출기업, 청년해외개척단원 등
- (주요 내용) '18년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의 성과점검 및 '19년 수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수출 지원사업 성과 점검 및 2019년 수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수출업체 및 청년해외개척단원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 전략회의」를 12.6(목)에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18년 수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19년 수출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통합조직, 미래클 사업 등 8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청년들로부터 사업별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19년 수출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19년부터 QR 코드를 통한 O2O 판매채널 구축, 왕홍(중국 파워블로거)을 활용한 SNS 홍보 등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수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한 통합조직 육성 및 해외 상설 판매관(K-Fresh Zone)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가소득 증진에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 “사업에 직접 참여한 생산자·수출업체 및 청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2019년 수출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손잡았다

- 환경·산업·국토부-8개 지자체 6 현대차 간 업무협약 체결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11월 21일 오후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서산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 협약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내년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및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한다.
- * 서울시장, 광주·울산 부시장, 충남·경남 부지사, 창원·아산·서산 시장
-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서울시 수소버스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

충전소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협약식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 시승행사가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소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1가를 돌아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수소 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보급을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천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붙임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협약식 행사계획(안).

2. 질의응답.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1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

붙임 1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계획(안)

□ 행사 취지

-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

□ 행사개요

- (일시) 2018. 11. 21(수) 16:00~17:00
- (장소) 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 서울광장(시승행사)
- (참석) 국회, 관계 부처, 지자체, 제작사 등 12명
 - (정부)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2차관
 - (지자체) 서울시장, 광주·울산 부시장, 충남·경남 부지사, 창원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등 8명
 - (제작사) 현대자동차 전략기획·홍보담당 사장

□ 세부계획(안)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협약식	16:00 ~ 16:03(3')	· 개회 및 내빈소개	플라자호텔 루비홀 (22층)
	16:03 ~ 16:12(9')	· 인사말씀(산업·환경·국토부, 서울시)	
	16:12 ~ 16:22(10')	· '19년 수소버스(30대) 시범사업 협약 ※ 환경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지자체(8), 현대차	
	16:22 ~ 16:27(5')	· '18년 수소버스(1대) 시범운영 협약 ※ 산업부(주관), 환경부, 서울시	
	16:27 ~ 16:30(3')	· 수소충전소 민간SPC 발대식 ※ 산업·환경·국토부, 민간SPC社(13社)	
(이동)	16:30 ~ 16:40(10')	· 플라자호텔→서울광장	서울광장
시승식	16:40 ~ 16:50(10')	· 수소버스 브리핑 및 수소차 미세먼지 정화 시연(현대차)	
	16:50 ~ 17:00(10')	· 수소버스 시승(장관, 시장 등 단체장) ※ 서울광장~종로1가~을지로입구~서울광장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업무협약의 취지는?

-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2.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협약서에는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한 협력 사항 및 홍보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3.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목적은?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도시 대기오염 비중은 65% 이상이며, 이 중에서 36%가 대형경유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친환경 버스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 따라서, 수소버스 본격 보급('20~)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미리 해소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 시범사업의 추진기간과 추진방식은?

- 시범사업 추진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 추진방식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2억원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보조금 약 1억원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는 차량비용 분담(2억원+ α), 차량 AS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하수도 정책 논의의 장 마련

- 하수도 분야 유역관리정책, 재이용 활성화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논의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3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수도 연찬회’를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하수도 연찬회는 매년 하수도 분야 관계자들의 업무 교류 등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 연찬회는 지자체, 관리대행업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하수도분야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번 연찬회는 올해 6월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령이 정비된 이후 하수도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 이후 변화되는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그간 하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 첫째 날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세션 I에서는 환경부 담당자들이 물관리 일원화 등 그간 하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 물관리 일원화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역단위의 물관리 정책 추진이다.
 - 하수도 분야에서도 2013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유역별 하수도정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또한, 처리된 하수를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유역내 처리된 하수를 용수로 활용하는 등 물 재이용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분류식하수관로 제도개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 세션Ⅱ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속한 전문가들이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책·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하수처리장내 에너지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대행업의 제도 운영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둘째 날은 향후 하수도 정책의 미래비전인 하수도 자산관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아울러, 각 발표 주제별로 질의 시간을 배정하여, 업무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시간도 마련했다.
-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많은 정보 교환의 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하수도 연찬회 계획 개요.

1. 목적

- 전국 하수업무 담당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하수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부정책 소개
- 하수도 분야 종사자간 정책방향, 운영관리기법 및 신기술 정보 교류 등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2. 추진계획

- 일시 : 2018.12.13.(목)~14.(금) (1박2일)
- 장소 : 거제시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 주최/주관 : 환경부 / 한국상하수도협회
- 참석인원 및 대상 : 하수도분야 관계자 400여명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하수업무 담당 공무원
 - 하수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하수도분야 담당자

3. 주요내용

- 1일차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시상식
 - (대상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지자체(14개)
 - (시상내용) 최우수상 4, 우수상 7, 발전상 3
 - 주제 발표
 - 유역하수도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등 10개 주제

□ 2일차

○ 특별강연 및 교양강연

구분	세부 일정	비고
◆ 제1일차		
13:00~13:40	■ 등 록	
13:40~13:50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협회)
13:50~14:00	■ 인사말 ○ 개회사 : 환경부 ○ 축 사 : 협 회	사회자 (협회)
14:00~14:20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평가 시상식 ○ 평가개요 설명 : 담당 사무관 ○ 인증패, 포상금 수여 : 상하수도정책관 ○ 기념촬영	사회자 (협회)
14:20~14:40	■ 휴식 및 발표장 준비	
Session I. 하수도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14:40~16:20	■ 주제발표	
14:40~15:00	○ 하수도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 개정(안) 설명(환경부 이서현)	사회자 (협회)
15:00~15:20	○ 유역하수도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환경부 임갑선)	
15:20~15:40	○ 하수관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환경부 나길)	
15:40~16:0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환경부 정성조)	
16:00~16:20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제도 개선 방안(환경부 성남준)	
16:20~16:40	○ 하수 재이용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환경부 이서현)	
16:40~17:00	■ 휴식	
Session II.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책·기술 발전 방안		
17:00~17:25	■ 주제발표	
17:25~17:50	○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제언(한국환경공단 이준석)	사회자 (협회)
17:50~18:15	○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KEI 조을생)	
18:15~18:40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개선방안 마련(EMC 이현섭)	
18:40~19:00	○ K-water 하수재이용 및 활성화 방안(K-water 정용채)	
19:00~21:00	■ 숙소배정	
19:00~21:00	■ 만찬	
◆ 제2일차		
09:10~10:10	■ 특별강연(KEI 이병국 박사) ○ 주제 : 하수도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	사회자 (협회)
10:10~10:30	■ 휴 식	
10:30~11:30	■ 교양강연(드리미 문화예술심리연구소 이은선 소장) ○ 주제 :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 즐기기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7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41.2%(3,147억 원, 정부안 대비 2.8% 292억 원)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4%(1,355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2%(250억 원), 양성평등기금 69.1%(1,480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8%(117억 원)씩 증가했다.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예산	6,531	6,461	7,122	7,641	10,788

-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월13만 원→월20만 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생계·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6만5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3만 원 → 월 20만 원) 및 지원 연령 상향(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8만 원 → 월 35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개소당 월300시간)
- 아이돌봄 지원 대상확대(중위소득기준 120% 이하→150% 이하) 및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연 600시간→연 720시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113개소 → 218개소)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16명→26명)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인당 5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②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 확대(492명→626명)
-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 확대(86명→125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16명→26명)
- 가정폭력·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백만원)
-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103개소/348명→128개소/572명)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성별 갈등해소 및 20·30 청년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혁신 및 정책 제안·개선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에 6억 원, 민간기업 내 임원 등 여성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예산이 5억 원이 신규 반영 되었으며,
-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운영 기간이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34억 원)되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
-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168개)도 증가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정부 당면 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지자체 역량 제고 -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역정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으로 매 해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다음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 올해 대회에는 7개 도에서 총 12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지역개발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발표회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이 최우수 사례, 강원도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도계 유리나라” 조성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올해의 지역정책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전남 담양군 돌아온 담주 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은 과거 담양군 경제 중심지였던 담양시장과 담주 4길 일대를 문화예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거점공간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대 건축물 디자인을 살린 공간정비, 주민참여형 마켓 운영,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전통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색깔이 뚜렷한 거점을 조성하였다는 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 “쓰담길” 조감도>

2 강원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도계 유리나라” 조성사업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탑폐석을 활용하여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광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독창적으로 활용한 유리공예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18.3월 개장 이후 1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우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전경>

3 경북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

-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아 온 舊 도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주시 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희 공공건축물의 역사성·고유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지역주체들(협동조합, 건축가, 예술가, 청년활동가 등)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커뮤니티 복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영주시 “영주 공유플랫폼” 구상>

-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지자체	전라남도 담양군
사업명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시장과 담주4길 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근대 건축물 중심의 거리정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주민·예술단체·청년단체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달빛장>” “2017 대한민국 예술대장정> <담주다방> 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담양시장과 담주4길 일대는 담양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인구감소·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공간이 점차 쇠퇴하였음 ○ 이러한 공간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 예술가, 지역 전문가 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
사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주4길 일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81.8%가 사업 필요성에 찬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업진행을 위한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 담양 근대 건축물 디자인을 보전하고, 공간 조성 컨셉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및 사례 연구 동시 추진 ○ 현재 해당 사업지를 지역 거점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연계 시도 중(예: 담양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담양시장 루프탑 가든 디자인&플랜 공모 등)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주4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라진 마을공동체 정서를 복구하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브랜드 콘텐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지역 내 다양한 축제·행사 등과 공간정비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었음 ○ 지역의 전통자원 현대화하여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지자체	강원도 삼척시
사업명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탑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의 일환으로 유리제품 제조·체험 등을 위한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 휴가 및 여가 활동 요구 증대를 대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전시실 및 역사관, 테마관, 판매센터, 야외전시장, 유리블로잉 시연장, 주차장 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업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쇠퇴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유리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리클러스터 산업 육성
사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개발계획 수립 착수, 2014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받아 2018.3월 사업 준공 및 개장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원 추추파크, 미인폭포, 뷰티스마켓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삼척시를 체류 관광지화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쓸비치, 해양레일바이크, 장호~용화로프웨이 등 해양관광지와 대금굴 & 환선굴 등 내륙관광축 개발을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학여행단, 어린이 관광객 등에게 인기, '18년 3월 이후 16만명 관광객 유치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대체산업으로 유리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기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임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향후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관광지 조성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사업명	영주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 도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재창조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물은 1983년부터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되어 왔고, 2008년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으로 유휴건물로 방치되었음 ○ 해당 건물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건물로서 해당 건물을 허물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동시에 지역 내 협동조합의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을 기획하게 됨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공간인 (구)도립도서관을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재설정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활발한 상호활동을 지원 ○ 거버넌스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버넌스와 외부거버넌스, 시민, 방문객 등의 다양한 사용자 상생공간을 마련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 지역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지역자산 발굴·연계를 통한 공유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과 도심지 내 근대역사관련 장소들을 연계·공유하여 힐링쉼터와 소통공간으로서의 플랫폼 제공 - 도심 가운데에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일상 공유 공간 조성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로 내실있는 사업 기획이 이루어짐 ○ 장소통합관리 수단으로서 도시·건축·공공 공간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및 역사탐방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우수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해수부·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 개최 [12.13.]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2월 13일(목) 베스트웨스턴 강남 호텔에서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은 연안개발,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각지의 해양생태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2015년) 법정 지정·관리 해양생물 심포지엄(2015. 12. 4.~5. 제주)

(2016년) 법정보호 해양생물·공간 관리 발전 심포지엄(2016. 11. 29. 서울)

(2017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 발전 심포지엄(2017. 11. 23. 서울)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령도 대표상징물인 점박이물범의 지역중심 보전방안을 비롯하여 ▲교란·유해생물 관리 현황 및 제언 ▲산림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 보전 ▲국내에 방류된 바다거북의 이동경로 추적 등 '해양생물 보전·관리방안'이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공간관리 제도 운영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서식처 관리 ▲해양보호구역 주민감시단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민·관·산·학·연 전문가들 간 종합토론을 통해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공공-민간부문 협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해양생물 및 서식처 보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제4회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 개요> —

- 일시/장소: 12. 13.(목) 13:00~19:30 / 베스트웨스턴 강남 호텔 다이아몬드홀(B1)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참석: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주요내용: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방안 발표 및 토론

참고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소요	내용	발표자
개회		진행: 정회인과장(해양환경공단)	
12:30-13:00	30'	· 등록/안내	
13:00-13:35	35'	· 개회사	해양환경공단
		· 축사	해양수산부
		· 기조강연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안준영 사무관
		· 기념촬영	
13:35-14:00	15'	· 휴식(Coffee Break)	
세션1 : 해양생물 보전·관리		좌장: 유정규 차장(해양환경공단)	
14:00-14:20	20'	· 지역중심 점박이물범 보전 방안	녹색사회연구소 박정운 사무국장
14:20-14:40	20'	· 교란·유해생물 관리현황 및 제언	국립생태원 이효혜미 박사
14:40-15:00	20'	· 산림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산림과학원 천정화 연구사
15:00-15:20	20'	· 국내에서 방류된 바다거북의 이동경로 추적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민섭 박사
15:20-15:40	20'	· 휴식(Coffee Break)	
세션2 :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		좌장: 명정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0-16:00	20'	· 해양공간관리 제도의 이해 및 추진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 박사
16:00-16:20	20'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서식처 관리	세광종합기술단 박준성 상무
16:20-16:40	20'	· 해양보호구역 주민감시단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안산시 이지선 주무관
16:40-17:00	20'	· 바다숲 조성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호·보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종렬 선임연구원
17:00-17:20	20'	· 휴식(Coffee Break)	
세션3 : 종합토론		좌장 : 목진용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20-18:20	60'	· 주제(안) -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의 현안과 미래 · 총평/폐회	
18:20-19:30	70'	· 만찬	행사장 2층 뷔페식당